제43권 36호 2024년 9월 8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남부플로리다 감리교회

South Florida Global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 (248)227-5400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 9.8.24 주일1부 예배

Sunday 1st Servic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찬송	Opening Hymn	37장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7번
영 광 송	Gloria Patri	6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같이
찬송	Hymnal 주 예수 넓은 품에 (Safe in the arms of Jesus)	417장 (통476)
기 도	Prayer	노효영 권사
찬양	Choir 내 주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호산나 찬양대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봉 헌	Offering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s) 42:1-5	

설 교	선 행 과 제 사	이철구 목사
Sermon	Good deeds and sacrifices	Rev. Chulgoo Lee

파송찬송 누가 주를 따라 (Who is on the Lord's side) Closing Hymn 도 Benediction 축 Rev. Chulgoo Lee

459장 (통514) 이철구 목사

SHP 01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LOBAL

주일2부 예배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417장 (통476)

황영순 권사

할렐루야 찬양대

다같이

Sunday 2nd Servic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Hymnal (Safe in the arms of Jesus)

기 도 Prayer

찬 송 Choir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봉 헌 Offering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Hebrews) 13:16

설 교 Sermon

선 행 과 제 사 Good deeds and sacrifices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파송찬송 Closing Hymn

축

누가 주를 따라 (Who is on the Lord's side)

도 Benediction

459장 (통514)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English Ministry

Sunday Worship

Worship & Praise Paul Kim & Youth Band

Prayer of Consecration Together

The Apostles' Creed Together

Greet one another

Announcement Mrs. Bitna Yoon

Offering Prayer Rev. Joseph Kim

Scripture Reading James 4:13-17 Together

Matthew 6:31-34

Sermon Rev. Joseph Kim

Tomorrow

Holy Communion

Closing Song Praise Team

Benediction Rev. Joseph Kim

CONSTITUTE O2 We welcome all of you who came to today's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GLOBAL MEDIODIST CRUEN

English Ministry Announcement

- 1. We have a leadership meeting at Noon today.
- 2. Young Adult Gorup is responsible to clean up the building today.
- 3. We encourage you to sign up your name on the sign-sheet in the fellowship. It cost \$300.00 to serve the lunch for entire congregation.
- 4. We invite you to 2024 New Room Conference (Livestream in our sanctuary) Wednesday September 18 (7:45 p.m.): No evening prayer on this day because we want you to attend the New Room Conference.

Thursday September 19 (7:45 p.m.) Friday September 20 (8:45 a.m.)

5. Church Wide Cleaning Day on September 21We encourage our youths and adults to come to help us to clean our church.7:00 a.m. Light Breakfast

7:30 a.m. Cleaning begins



English Ministry Announcement

6. Verse of the Day: Matthew 6:34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Weekly Meetings:

Life Group: Sunday right after worship service (by age group)

Tues. Zoom Prayer at 8:45 p.m. for Youth Group Parents

Wed. Zoom Prayer at 7:30 p.m.

Wed. Young Adult Zoom Meeting (men & women separately)

Youth FNL: Friday 7 p.m. (provides dinner):

Bi-weekly Meeting: "The Story" Bible Study: 9/12 at 6:30 p.m. (Lesson 4); provides dinner Monthly Young Adult Life Group: Contact Jacob & Grace Yoon (provides lunch)

Offering: Sunday September 1, 2024

Tithe: \$.550.00 General: \$268.00 Total: \$818.00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of you who came to today's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남플교회소식

News of the Church of South Florida

교육관 대청소 Church Cleaning Day

9월 21일(토) 오전 7:30, 남플 장로회와 EM 주관으로 교육관 대청소 및 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장로회-교육관 주변 Power wash와 교실청소, *EM-예배실 입구 Sign 설치 및 Gardening.. *가을맞이 대청소 및 미화 작업에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On September 21 (Sat.), we will have a church wide cleaning day. Please come and help us. Ex. make a flower garden, power pressure, classrooms.

We will begin at 7:30 a.m.

한글학교 추석맞이 행사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Thanksgiving Day Celebration

9/14(토요일) 오전 9시, 한글학교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행사를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 경 집사 / 954-328-5187

9/14 (Sat.) at 9 a.m.

Korean Language School will host this celebration event. If you are willing to provide some financial donation, please contact Mrs. Christine Kim/954-328-5187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of you who came to today's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주간 사역 안내

매주 수요일 오후 12:30-2:00, 초등부실에서 <동양화 교실>이 있습니다. *강사- 윤창우 권사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새벽예배후 초등부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박인숙 장로

a. Oriental Drawing Class

Every Wednesday at 12:30 p.m. All who has interest can participate this free class.

Instructor: Chang Woo Yoon/617-640-3639

b. There is an intercessory prayer meeting at 7 p.m. in our elementary classroom every Wednesday.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Elder In Sook Park.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of you who came to today's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유럽지역 목회자 학교 Europe Pastor's School

담임목사님은 아래 일정으로 유럽지역 한인 감리교회 목회자 학교를 인도 하십니다. 목사님의 강의와 유럽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날자 / 9월 10일(화)-13일(금) 장소 / 카파토기아, 튀르키에 강사 / 이성철 목사, 이철구 목사

Our senior pastor is planning to lead the pastors who serve the Methodist Church in Europe. Please pray for traveling mercy and the seminar.

Date: 9/10 - 13

Place: Turkey and Cappadocia

Guest Speakers: Rev. Sungchul Lee, Rev. Chulgoo Lee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of you who came to today's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교우&목회자 동정

[등록] 조은우 성도님 (321-795-1378/ 믿음교구- 터키 쿠바 속) 가정, 배수현(이창환) 집사님 (아들 찬승) 가정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541-520-0657/ 충성교구- 아이티1속) 환영합니다.

New Member: Eun Woo Choi (321-795-1378)

Deacon Soo Hyun Bae (son Chan Seung)

We welcome our new members and their family.

[휴가] 9/14-18일, 이철구 목사님 가정 휴가 9/24-28일, 김학섭 목사님 가정 휴가 *9/15 주일 설교담당-이희문 목사, 9/10-18 새벽 설교담당-김학섭 목사, *9/14 겟세마네 설교담당-윤성민 전도사

Pastor's Schedule 9/10-13, Lead the pastor's school in Europe 9/14-18, Rev Chulgoo Lee takes a family vacation 9/24-28, Rev. Joseph Kim's family vacation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Church that can see the Grace of God

>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 Meeting Guide

한어권 장년 모임 Meetings for Korean speaking adults

주일예배(Sunday Worship) 1부 8:00 am, 2부 10:30 am 수요 말씀 묵상(Q.T) Wed. Quiet Time Small Group 7:30pm 새벽기도회 Daily Dawn Prayer (Tue) ~ (Sat) 6:00 am

Meetings for English speaking adults (영어예배)

Sunday Worship at 10:30 a.m. 성경공부 / 목요일(격주) 7:00 pm Bible Study at 7:00 p.m. (Every other week)

Youth Ministry (중고등부)

Sunday Worship at 10:30 a.m. FNL (Friday Night Live) at 7 p.m.

Children's Ministry(주일학교)

Sunday Service at 10:30 a.m. Kinder QT (Youtube) at 7:00pm

ABOUT STREET ST

섬기는 사람들 Staff & Volunteers who serve our church

- · E.M./ Youth 김학섭 목사 ·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E.M./ Youth (Rev. Joseph Kim) Elementary / Jiyeon Lee
- · 유아유치부- 미디어 / 윤성민 전도사 Toddler & Pre-School / Seongmin Yun
-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Haiti Mission Center
- · 성가대 /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Choir Director Pianist
-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Praise Team Leader Key Board Players
- · 오르간/ 1,2부 조흥숙 Organist
-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Translators
- · 방송 미디어/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Media and Sound Room Operators
- · 교회사무/ 김숙형 Administrative Assistant

독회감감 05

지난 주 일본에 몰아친태풍 '산 산'의 피해상황을 뉴스를 보는데, 7년 전에 마이애미를 내리 친 'Irma' 태풍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우리 지역을 내리 친 Irma 태풍이후,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행복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Irma의 여파로 전기없이 여러 날을 지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그후 전기가 들어온 것은 일상으로의 회복이요 단조로움의 회귀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신했던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잘나가던 사업이 파산하는 등, 갑작스럽게 태풍이 내리칠 때 그 인생비애를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시인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시42:5)라며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에 당신을 찾아 나오는 자를 기뻐하며 맞이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1:7).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느 국면에서든 고난이 찾아들 때두려워하여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알고, 시인처럼 주의이름을 '갈급하게' 부르며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42:1). 유대 지역에서 야생하는 사슴들은 건기때에 허기지니까 광야의 마른 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목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을느껴 미친 듯 시냇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갈급하다'입니다. 이 말은 마른 풀을 먹은 사슴이 크게 소리 지르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슴은 사냥꾼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괴성을 지르며 물을 찾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그런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ESIZIA05

Irma가 남부 플로리다, 그것도 우리 교회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속보가 일주일 내내 전해질 때 어땠습니까? 나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저기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한 장 진행 중이었는데, 본당의 철골 기둥은 다 세워졌고 그 위에 지붕 강판이 반 쯤 덮였을 때, 그 강력한 태풍이 우리 지역을 관통한다는 뉴스가 계속 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 모두가 기뻐하며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릴 바라보는 이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Irma가 오고 있었으니, 할 수 있었던 일은 '갈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지인들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그건 한 줄기 생수 같았습니다. 순전히 제 믿음이지만, 그 후부터 Irma의 방향이 얼마씩 서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지역에 태풍이 임했을 때는 3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풍은 강력하여 수많은 도로의 가로수가 뽑혀 이곳저곳에 나동그라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계속 성전을 건축하였고 마침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렘10:13). 우리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풍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탈렌트 최불암씨가 한 보안 업체에 광고 모델이 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궈도 잠궈도 불안까지 잠글 수는 없습니다!" 방문이나 금고 같으면 자물쇠로 잠그면 되겠지만. 마음의 불안은 그런 걸로 잠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고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마음이 심히 눌릴 때 "정원지기는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을 마음에 품고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주를 뵙고 그 품안에 거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PASTORAL COLUMN

Watching the news about the damage caused by Typhoon San San that hit Japan last week, I recollected Hurricane Irma that hit South Florida 7 years ago as if it happened yesterday. After Hurricane Irma hit our area on September 10, 2017, I have realized that "the monotonous daily routine is happiness." At the time, living without electricity for several days due to the aftermath of Irma was truly unbearable and painful. When the electricity came back on, it was a return to daily life and to monotony, which couldn't have been better. There are many times in life when one's heart is broken due to the ups and downs of life. When someone you trusted betrays you, when your health gets a red light, when a business that was going well goes bankrupt, and when a storm suddenly hits your life, how can you explain the sorrow of life? The Psalmist asked a question to his own soul,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salm 42:5). He knew his weakness, so he relied on God and placed his hope in Him to control himself. God welcomes and rejoices in those who come to Him when they encounter the storms of life. "The Lord is good,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in him" (Nahum 1:7). Therefore, when hardships come to us in any phase of life, rather than being afraid, discouraged, and anxious, we should realize that it is the time to meet God, and like the Psalmist, we should seek Him, calling His name 'thirstily'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so my soul pants for you, O God" (Psalm 42:1). It is known that wild deer in the Judean region sometimes eat dry grass in the wilderness when they are hungry during the dry season, and then they feel a burning pain in their throats and crave water. The word that best describes that situation is 'being thirsty.' This word means that a deer that has eaten dry grass cries out loudly and is thirsty for water. The deer cries out for water even at the risk of being exposed to hunters. The Psalmist describes himself as searching for God with the heart of a deer in being thirsty.

PASTORAL COLUMN

What was it like when the news broke all week that Irma was heading toward South Florida, and point-blank toward our church? I was like a thirsty deer, looking for streams of water here and there. Our church was in the middle of building a new sanctuary, and when the main sanctuary's steel columns were all erected, and the roof steel prate was halfway over them, it was natural that I was desperate at the news reporting that the powerful hurricane was going through our area. In fact, not everyone was happy about the construction of our church's sanctuary at the time. There were quite a few people outside the church who looked at us with unfavorable eyes. In that situation, when Irma was coming, all I could do was 'desperately' pray to God for help. At that time, I heard that many pastors and acquaintances across the country were praying for intercession for us. At that time, the intercession prayer was like a stream of living water. It was purely my faith, but after the prayers, Irma began to change direction slightly to the west, and when it hit our area, it was downgraded to a Category 3 hurricane. However, the hurricane was still so strong that it was not hard to see many roadside trees uprooted and scattered here and there. Fortunately, we continued to build the temple despite such circumstances and were finally able to complete it. "When he thunders, the waters in the heavens roar; he makes clouds r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He sends lightning with the rain and brings out the wind from his storehouses" (Jeremiah 10:13). Our God is the Creator who governs natural phenomena. Therefore, when we encounter something that we cannot handle, such as a hurricane, the first thing we must do is ask God for help.

Long ago, Choi Bul-am, a Kor3ean talent, became an advertising model for a security company and shouted like this: "No matter how tightly you lock it, you can't lock anxiety!" If it's a door or a safe, you can lock it with a padlock, but you can't lock anxiety in your heart with that. Therefore, when the storm of life hits you, and you feel deeply hurt by things that are beyond human control, I hope you will keep in mind the saying, "The gardener is closest to the tree when pruning,"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make it an opportunity to see the Lord and dwell in His embrace.

WORSHIPER 06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People who serve today and next Sunday for worship and fellowship luncheon

Servants of the Week

예배안내 헌금/안내 성경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Worship Usher Offering/Usher Scripture Reading Prayer Fellowship Luncheon

Today

오늘
ISt 1부 온유교구 담당자 노효영권사 소망교구

Meekness Parish
Hope Parish

9월 8일 2nd 2부 온유교구 담당자 황영순권사 소망교구

Next Week

CHAPT IST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임승준집사 사랑교구

9월 15일 2nd 2년 오유고그 당당자 기차리자로 나라고그

^{'를} 2nd 2부 온유교구 담당자 김창림장로 사랑교구

이번주 애찬 섬김 This Week's Fellowship



김세희, 김동규권사 준생일감사 (Thanksgiving)

다음주 애찬 섬김 Next Week's Fellowship



박소임 권사 생일감사 (Thanksgiving)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24,241.00

Last Week's Offering Total

일반헌금 \$18,211.00

General

건축헌금 \$500.00 Building Fund

선교헌금 \$5,530.00 Foreign Mission 십일조 Tithe \$8,741.00 남플사랑 \$50.00 Nample Love

주일 Sunday \$1,273.00 감사 \$2,135.00 기타 Thanksgiving Micel \$6,012,00

약 정 Designated \$500.00

속 회: \$390.00 Small Group 중남미:\$5,140.00 South America



07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Mission Fields and Missionaries We Support

충성 1속 (중국- 장은광)

Faithfulness 1 (China)

충성 2속 (하이티1- 김승돈)

Faithfulness 1 (Haiti)

충성 3속 (아리조나- 이영호)

Faithfulness 3 (Arizona)

믿음 1속 (터키- 송정렬)

Faith 1 (Turkey)

믿음 2속 (쿠바-김기헌)

Faith 2 (Cuba)

믿음 3속 (카자스탄- 양재성)

Faith 3 (Kazakhstan)

믿음 4속 (하이티2- 정 광)

Faith4 (Haiti)

사랑 1속 (니카라과2-김규현)

Love 1 (Nicaragua) (Thailand)

사랑 2속 (파나마-김재한)

Love 2 (Panama)

온유 1속 (볼리비아- 김영모)

Meekness 1 (Bolivia)

온유 2속 (도미니카- 피터정)

Meekness 2(Dominica)

소망 1속 (니카라과- 김향자)

Hope 1 (Nicaragua)

소망 2속 (이라크- 손기주)

Hope 2 (Iraq)

은혜속 (브라질-지덕진)

Grace (Brazil)

드림속 (키르키즈스탄-임다윗)

Grace 2 (Kyrgyzstan)